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⑤ 03. ①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③ 27. ③ 28. ③ 29. ② 30. ③
 31. ① 32. ⑤ 33. ⑤ 34. ④ 35. ② 36. ① 37. ④ 38. ③ 39. ⑤ 40. ⑤
 41. ⑤ 42. ② 43. ④ 44. ⑤ 45. ①

[1~2] 화법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발표자는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발표의 화제인 ‘들꽃’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를 마무리하는 4문단에서 발표자는 도표를 제시하여 들꽃의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 들꽃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다음 시간에 들꽃이 명명된 이유와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 발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발표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았다. ③ 발표의 내용에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발표를 시작하는 1문단에서 발표자는 프로젝트 과제와 발표 차례를 청중에게 안내하고 있을 뿐, 청중을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발표의 중간 중간에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청중의 질문에 대해 발표자가 답을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들꽃 이름이 분류된 도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들꽃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를 알아보고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다음 발표의 내용을 예고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한 것이지 들꽃 이름과 자연 환경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1차 탐구 과제’와 ‘2차 탐구 과제’를 먼저 안내한 후, ‘오늘은 1차 탐구 과제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발표자는 자신이 찍은 ‘제비꽃 사진’을 제시하여 발표의 중심 화제인

들꽃의 모습에 대한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발표자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고산 지대의 환경과 그곳에서 자라는 ‘고려엉겅퀴꽃’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 주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발표자는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으로 ‘고산 지대에서 피는 금강초롱꽃과 동자꽃’의 모습을 보여 주며, 이들 꽃들도 ‘아담하면서 색이 선명’한 고산 지대 들꽃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7] 화법, 작문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찬성 1’이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반대 1’은 입론에서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대 1’도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찬성 1’과 ‘반대 1’은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 언급할 뿐, 선거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찬성 1’은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1’은 ‘결선 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선 투표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1’만 새로운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찬성 1’과 ‘반대 1’ 모두 선거 홍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찬성 1’은 입론에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의 적절성을 묻는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해 ‘찬성 1’은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4.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반대 1’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결선 투표제’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1’이 제기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의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라는 발언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찬성 1’은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라고 말하며 ‘반대 1’이 한 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선 투표제는 단순 다수제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므로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반대 1’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반론에서, ‘반대 1’이 입론 때 제기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토론 유형과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찬성 1’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할 수 있으므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박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찬성 1’은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말하며 ‘결선 투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6.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필자는 2문단과 3문단에서 찬반 양측이 발언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다음, 5문단에서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의 입장과 ‘단순 다수제’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에서 글을 쓴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 2문단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학생회장이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사회 시간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토론을 들으며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언급하고, ‘관련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의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부분에서 토론회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필자는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필자는 ‘찬성 측’이 제시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였지만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을 얻지 못한 ‘A 나라’의 사례를 들어 ‘찬성 측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필자는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이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가)에 제시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1문단에서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② (가)에 제시된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2문단에서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이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④ (가)에 제시된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3문단에서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가)에 제시된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여 (나)의 4문단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9.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ㄱ-2는 학교의 학생들의 88%가 주 4회 이상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ㄴ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 의식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보여 준다. 그러나 ㄱ-2를 통해 학생들이 SNS 이용 목적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SNS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1은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부 활동에 ‘관심이 없어서’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

하고 있다. 따라서 ㄱ-1을 활용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② ㄱ-1을 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방법을 몰라서’임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에서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ㄱ-1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 방법을 모르는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동아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ㄴ과 연관 지어 보면, 동아리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진로 의식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⑤ ㄷ은 퍼네이션을 위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재미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나)의 4문단에서 퍼네이션의 일환으로 최근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ㄷ과 연관 지어 보면,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은 사람들이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나눔은 내가 베푼 마음이 누군가에게 퍼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은 나눔의 의의를 밝힌 것이다. 또한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 보지 않으시겠어요?’라는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는 있으나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나눔의 의의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의 의의를 밝혔을 뿐 나눔의 의의는 밝히지 않았다. 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라는 진술을 보면,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의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을 사용하긴 했지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11~15] 문법

[11~12] 품사 분류의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지문해설 : 이 글은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결과로 개별 품사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에 대해 상술하여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사례로 ‘밝다’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있다, 없다’의 경우 예외적인 양상을 보여서 의미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다.

[주제]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 및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

11.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적용

정답해설 : ‘즐거운’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라는 뜻을 지니는 ‘즐겁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활용을 하고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은 관형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옛날, 사진, 기억’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은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보니, 떠올랐다’가 이에 해당한다. ③ ㉣은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하나’가 이에 해당한다. ④ ㉤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예문에서는 ‘을, 가’가 이에 해당한다. ‘을’은 목적격 조사이고, ‘가’는 주격 조사이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의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설명에 따라 ㉠의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있다, 없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문 ‘돈이 있는(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가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예쁘다’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예뻐라’, ‘예쁘자’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명령형·청유형 어미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예쁘려고’, ‘예쁘러’가 쓰인 문장이 비문임을 통해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 ‘-러’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무가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길다.’의 ‘길다’는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나무가 쑥쑥 크다.’의 ‘크다’와 ‘머리카락이 잘 긴다.’의 ‘길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후자는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다.

13. 로마자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의 실제

정답해설 : ㉡에서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

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난다. 한편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같이[가치]’를 ‘gati’가 아니라 ‘ga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이는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난다.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는 ‘잡다[잡따]’를 ‘japdda’가 아니라 ‘japda’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달아[다라]’에서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용언의 활용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놓지[노치]’를 ‘nohji’가 아니라 ‘noch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며, 이는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난다.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맨입[맨닙]’을 ‘maenip’이 아니라 ‘maennip’으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며, 이는 ‘밥물[밤물]’에서도 일어난다.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데, 이는 ‘백미[뱅미]’를 ‘baekmi’가 아니라 ‘baengmi’로 적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는 부사어 ‘부텃긔(부처께)’의 ‘부터(부처)’이다. ‘왕(王)’은 주체이며, ‘ㅁㅅ물(마음을)’은 목적어로 쓰였다. 객체인 ‘부터(부처)’를 높이기 위해 ‘내아’가 아니라 ‘내ㅅㅂ(내-+-술-+-아)’가 쓰인 것이다. ㉡이 설명하는 예문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결합하는데, <보기>에서 어간 말음이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쓰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는 ‘-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듣-+-졸-+-으며’를 연결(이어적기)한 ‘듣즈븍며’가 적절하다. **정답 ③**

15.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에는 ‘내가 늘 쉬-’가 전성 어미 ‘-던’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는 ‘자식이 건강하-’가 전성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에는 ‘연락도 없-’이 전성 어미 ‘-이’를 통해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이 전성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에는 ‘아주 어렵-’이 전성 어미 ‘-은’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16~20] 문학

[16~20] 고전 시가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현대시 - (나)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이론 -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

(가)

지문해설 :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 뒤,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회를 진솔하게 노래한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이다. 각 연의 시상이 전개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강호에 은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치군택민)과 '강호한정'을 추구하는 삶(조월경운)이 교차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살필 수 있다.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의 고민과 한가한 삶의 수용

(나)

지문해설 : 화자의 가난한 어린 시절, 삶을 힘겹게 꾸려갔던 어머니의 한스러움을 회상하며 그려낸 작품이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생선을 파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생선 눈썹의 빛이나 남강에 비친 별빛 등으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빛의 이미지는 마지막 연에서 달빛이 반사되는 옹기의 반짝임으로 연결되고, 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환기하며 어머니의 한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회상

(다)

지문해설 :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음보와 음절 등 형식적 측면의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말소리, 휴지(休止), 삽표나 마침표 등의 반복을 통해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배후로 물러나 친숙함 혹은 낯설음을 유발하는데, 김소월과 이상의 시가 각각 해당된다. 즉 한국 현대 시에서의 리듬은 김소월의 친숙함과 이상의 낯설음과 같은 간극 사이에 위치한다.

[주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 드러나는 리듬과 현대 시에 작용하는 고전 시가의 리듬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제1수>의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제16수>의 '오라 말라 흥뇨', <제17수>의 '어찌 다르리', '아무 덴들 어떠리' 등에서 '~리야', '~뇨', '~리' 등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2연의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3연의 ‘손 시리게 떨던가’, 4연의 ‘반짝이던 것인가’에서와 같이 ‘~나 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의 ‘강호(江湖)’는 탈속성이 있는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시적 공간은 탈속성과 관련이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뚜렷한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17.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17수>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은, 은둔함으로써 행하는 도(道)와 세상에 나아감으로써 행하는 도는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8수>의 ‘빈천거(貧賤居)’, <제16수>의 ‘행장유도(行藏有道)’와 연결 지어 보았을 때,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통해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수>의 화자가 고려한 ‘공명’은 <제17수>의 ‘성현이 가신 길’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2수>의 화자가 ‘부급동남(負莚東南)’ 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함으로써 훌륭한 임금을 섬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③ <제4수>의 화자는 임금과 즐거움 사이, 공명과 강호 사이, 나아가 <제8수>에서는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제8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명철한 군자라면 기꺼이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하물며 부귀는 위태로울 수 있어 ‘빈천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강호’를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부귀 위기’를 들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제4수>의 ‘기로(岐路)’는 자연을 즐기는 일과 벼슬살이를 하는 일 사이에서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제17수>에서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한 가지 도(道)로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기로’가 ‘일도’로 나타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제17수>에서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를 통해 강호에 은거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성현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보면 (가)의 작가인 권호문은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제16수>의 종장은 조정에서 화자에게 ‘회보미방(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하다며 벼슬에 나가기 권유하는 것에 대해 화자가 거절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이지 화자의 답변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두 번째 문장과 <제1수>의 초장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첫 문장을 통해 조선 시대에 충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1수>의 ‘십재황황(十載惶惶)’하는 모습은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도를 행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기>의 유교적 출처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생활을 선택한 화자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병들고 늙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손 시리게 떨던가’는 오누이가 추운 밤 ‘별 받’ 아래의 ‘골방’ 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행복감과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바로 앞의 ‘바닷밧이 깔리는’과 연결되어 파장 무렵 바닷가 ‘생어물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다 팔지 못한 생선의 ‘빛 발하는 눈깔’은 둥글게 빛나는 유사한 이미지를 지닌 ‘손 안 닿는’ ‘은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한스러움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④ 4연의 ‘신새 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을 통해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늘 새벽에 집을 나서 밤에 귀가해 낮의 남강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 받은 옹기’의 표면과 어머니의 눈물을 연결지어, 어머니의 ‘한’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결합, 즉 모음 ‘ㄴ, ㄷ, ㅁ’와 유성 자음 ‘ㄹ, ㅁ’으로 이루어진 시어(‘울’, ‘엄매’)를 반복하여 리듬을 창출하고 어머니의 힘겨운 삶에 대한 화자의 애상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의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를 통해 (가)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를 통해 (가)가 규칙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를 통해 (나)의 ‘오명 가명’이 외적 규율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의 삶은 무료함과 거리가 멀다. ⑤ (다)의 ‘현대 시에서는 ~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로 볼 때,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시가의 리듬과는 관련이 없다.

[21~25] 독서

[21~25] 사회, ‘채권과 CDS 프리미엄’

지문해설 : 이 글은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상품인 CDS와 이에 관련된 경제 지표인 CDS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이자와 원금이 투자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신용 위험이라 한다. 채권 투자자들은 CDS 거래를 통해 신용 위험을 보장 매도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신용 위험을 회피하는데, CDS 프리미엄은 이때 보장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료이다.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나 기초 자산인 채권의 신용 등급 등이 있다.

[주제] 신용 위험을 보장하는 CDS 거래와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신용 위험은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고,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위험이 작아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질수록 신용 위험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를 통해 신용 평가 제도가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신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신용 등급이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단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

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신용 위험이 커지고, 해당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를 통해 채권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문단의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채권 투자에는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④ 4문단의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이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CDS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인 ㉡은 ㉢을 대신해 ㉣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한 '보장 매도자'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발행하고 ㉢이 매입한 채권은 ㉡과의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매입하여 보유한 채권은 기초 자산이다. ② ㉠이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인 ㉡과 CDS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은 보장 매입자, ㉡은 보장 매도자이다. 기초 자산인 ㉣이 발행한 채권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은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이며, 채권을 매입한 ㉢이 채권 투자자이다. 채권 투자자인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파생 금융 상품인 CDS를 활용한다. ⑤ 5문단의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보장 매도자인 ㉡이 ㉣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를 ㉢에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 자산인 채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은 ㉢이 지불한 보험료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면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난다면 ㉡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본다고 보기 어렵다.

2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문단을 통해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커지며,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신용 위험이 클수록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는 점, 신용 등급이 AAA, AA, A, BBB, BB의 순으로 낮아진다는 점, '+', '-'를 통해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과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을 비교했을 때,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로 가장 높은 ㉠가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크다. 또한 ㉡ ~ ㉣ 중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로 ㉡와 ㉣보다 높은 ㉢의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크다. ㉡ ~ ㉣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은 ㉡, ㉢, ㉣ 순으로 CDS 프리미엄이 크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의 크기는 ㉠ > ㉢ > ㉡ > ㉣ > ㉣ 이다. 정답 ②

24.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X는 채권 발행자, Y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이자 보장 매입자, Z는 보장 매도자이다. Z는 X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위험으로 Y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신용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된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으므로 Y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보상에 주어야 하는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작아지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통해 2011년 1월 1일 X가 채권 Bx를 발행하였으며, Y가 발행 즉시 Bx를 전량 매입하고 Z와 CDS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Z이며, X는 채권의 발행자로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보기>를 통해 2011년 9월 17일에는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11년 11월 Bx의 신용 등급은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인 A-보다 낮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2013년 9월 30일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계약 체결 당시의 AAA에서 AA+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DS 프리미엄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을 때 커지므로, Z의 신용 등급이 낮아진 시점의 CDS 프리미엄이 100bp라면 신용 등급이 높았을 때에는 100bp보다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였으며, 2011년 9월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2년 12월 30일에는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고 하였으므로 2012년 12월 30일 이후 시점인 2013년 4월에는 B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아졌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이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에서의 ‘떨어졌다’는 이러한 의미로 쓰인 사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익이 남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③ ‘입맛이 없어지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④ ‘옷이나 신발 따위가 헤어져서 못 쓰게 되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⑤ ‘명령이나 허락 따위가 내려지다.’라는 의미의 사례이다.

[26~28] 문학

[26~28]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홍길동전’

지문해설 : <홍길동전>은 영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한글 소설이다. 부패한 사회의 문제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이상 세계인 율도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서 차별의 문제와 관리들의 부패상을 함께 그려냄으로써 모순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혁명성과 서민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물, 배경, 소재 등을 중국에서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으며, 한글 표기를 통해 독자층을 서민층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진정한 한글 소설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된 작품은 <홍길동전>의 19세기 이본으로, 당대 독자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변형을 통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다음 권으로의 독서를 유도하는 상업적 전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 모순된 사회 제도의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흥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따라 길동의 왼쪽 다리에 있는 ‘검은 일곱 점’을 통해 ‘참 길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러 길동의 다리를 살펴본 결과 모두 일곱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길동’ 찾기에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흥 의정이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뉘라 하느뇨?’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활빈당에 천하역사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쏘냐?’라고 길동이 대답한 내용으로 보아,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많은 길동이 흥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

리를 걷고 보이니’ 등으로 보아, 무수한 길동이 흥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등의 내용으로 보아, 길동은 상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2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활빈당’의 상석에 앉은 인물은 흥길동에게 글을 보여 주며 이 글에 적힌 내용을 행하면 흥길동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장군 자리’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글’에 제시된 세 가지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하게 될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㉑는 길동이 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㉑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㉒ ㉒에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와 같은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㉓ ㉓는 길동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활빈당에서 길동이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㉔는 그 시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㉕는 그 시험을 통해 길동이 얻게 될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㉑와 ㉕가 길동의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㉖ ㉖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㉑가 활빈당에서 길동이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이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㉑을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고 했으므로, ㉑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㉒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㉑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㉓ 길동이 왕에게 ‘병조판서’의 자리를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윗글의 변형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이 작품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9~32] 독서

[29~32] 기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지문해설 : 이 글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의 특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진공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TM은 금속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접촉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 상태를 관찰한다. STM은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하는 기체 분자와 시료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진공을 필요로 한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요구되는 진공도의 정도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 고정된 온도에서의 기체 분자 질량, 기체의 압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은 스퍼터 이온 펌프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기체 분자로부터 분리된 양이온을 고정시키고,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가 흡착되게 하여 초고진공 상태를 만든다.

[주제]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의 활용에 요구되는 진공 기술

29.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고 설명하며 스퍼터 이온 펌프로 초고진공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퍼터 이온 펌프가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진공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이며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높다. 따라서 진공은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높은 상태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며,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수준 이하의 기체의 압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온도가 일정한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짧다.

3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질소의 경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760토르 대기압에서는 3×10^{-9} 초이지만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게 되면 약 2,500초로 증가한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STM의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거리가 원자 단위의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특징은 시료 표면의 높낮이 측정을 원자 단위에서 가능케 하므로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에 따르면 STM을 이용해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금속 탐침과 시료 표면 간에 전압을 걸어 주어 전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해 관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지도록 진공이 요구된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접촉 없이도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

3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 형성된다. 고전압의 영향으로 ㉠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이러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양극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의 '음극'이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양이온이 ㉠의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따라서 음극이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의 '음극'으로 당겨진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

은 ㉔의 ‘음극’에 박혀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㉔의 ‘음극’이 양이온을 고정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㉕ 4문단에 따르면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3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라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와 D의 통 내부에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은 같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만 비교 대상이 된다. E의 압력은 D와 같으나 분자의 질량은 D보다 크기 때문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경우이며, 이때 E의 충돌 빈도는 D보다 낮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3문단에서 질소를 예로 들어 온도가 20°C, 압력이 10^{-9} 토르일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대략 2,500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이 같은 〈보기〉의 진공 통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다. ㉒ 2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B는 기체 압력이 10^{-9} 토르인 A보다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적으므로 기체 압력이 10^{-9} 토르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㉓ 2문단에 따르면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진공도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C는 B에 비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많으므로 C 내부의 진공도가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㉔ 3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클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 D는 A에 비해 분자의 질량이 크므로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 것이다.

[33~38] 독서

[33~38] 복합(인문, 예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대립된 주장을 먼저 살펴본 후, 두 입장을 포괄하는 이론적 단초로서 일찍이 영화를 통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설명한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생산학파는 근대 도시의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 속에서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보는 반면,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결핍된 욕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벤야민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비 행위가 제공하는 복합적인 체험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에 이러한 복합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주제]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대립된 주장을 포괄하는 벤야민의 견해

33.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의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일찍이 두 학파의 입장을 포괄하는 견해를 제시한 벤야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가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예술 형식인 영화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②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근대 도시나 영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벤야민의 견해가 지닌 한계는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③ 근대 도시의 기원이나 영화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영화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있지 않으며, 벤야민의 주장에 대한 비판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했다고 본 생산학파와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근대 도시인은 자신들이 가진 욕망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생산학파는 근대 도시에서 근대 도시인은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어떠한 쾌락이나 환상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 도시가 근대 도시인의 환상에 의해 작동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계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생산학파가 아니라 소비학파의 주장에 가깝다. ③ 소비학파는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 뿐,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는 않았다. ⑤ 집단 규율에 의해 노동자는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이 된다는 생산학파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 소비가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는 입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는 영화 제작 과정이나 영화의 형식 원리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화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밑줄 친 ㉔의 ‘정신적 충격’을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벤야민은 영화가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관객이 영화를 통해 받는 정신적 충격은 근대 도시의 일상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영화는 서로 다른 시 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의 형식 원리를 통해 관객에게 정신적 충격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체험을 관객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베르토프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영화인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를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생산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는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여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 베르토프의 영화 속에서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되므로 생산학파가 묘사하는 혼욕된 노동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③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했는데, 벤야민의 설명에 따르면 영화의 형식 원리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충격 체험, 즉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한다. ④ 베르토프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편집을 적극 활용하여 짧은 이미지들을 빠르게 교차해 제시했다. 이러한 기법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어지는 이미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들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데, 이는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7. 글의 주제, 함축된 의미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대 도시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라는 진술은 벤야민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근대 생산 체제에 종속된 노동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를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으로 본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기계화된 노동으로 인해 착취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근대 도시인은 소비 행위의 주체로서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므로 소비 행위는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근대 도시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고 보았다. ⑤ 노동자들이 집단 규율에 따라 기계화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생산학파의 견해인데, 5문단에 따르면 벤야민은 이러한 노동자도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로 본다.

38.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연상(聯想)하다’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떠올리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봉합(縫合)하다’는 ‘수술을 하려고 절단한 자리나 외상(外傷)으로 갈라진 자리를 꿰매어 붙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우르다’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보증(保證)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가져다주다’는 ‘어떤 상태나 결과를 낳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의지(依支)하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빚대다’는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개편(改編)하다’는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잡다’는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39~41] 문학

[39~41] 시나리오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북측 초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리극 형식의 영화 시나리오이다. 사건에 대한 남과 북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자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서는 한국계 스위스 장교(소피)를 파견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념을 뛰어넘어 교류했던 남북 병사의 우정이 밝혀지면서 분단 현실의 극복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이 제시된다. 공동 경비 구역을 분단에 따른 대치의 공간이 아닌 공존과 화해의 지역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이념적 갈등 상황에 대한 휴머니즘적 극복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주제] 분단에서 비롯된 비극적 현실과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은 남북 병사의 우정

39. 작품의 내용 파악/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윗글 마지막 소피의 대사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에서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S#79.의 밑줄 친 ㉠ 마지막 부분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에서 '소피'의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S#82.의 끝부분에서 '소피'는 '수혁'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S#82.에서 '수혁'의 두 번째 대사 '친근감이 들었습니다.'를 보면 '소피'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그녀를 경계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S#82.에서 '소피'의 여덟 번째 대사 중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부분을 통해 '소피'가 짐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S#82.에서 '소피'의 첫 번째 대사를 보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피'가 '수혁'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실의 대가'를 얻기 위해 '수혁'이 '소피'를 만나러 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S#79.에서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과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드러나 있으므로,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와 외부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② S#79.에서 '보타'의 마지막 대사 중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를 통해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S#82.에서 '소피'가

‘진짜 재미난 쇼’라고 말하며 ‘석 장의 이미지’를 ‘수혁’에게 제시하며 말하는 부분을 통해, ㉠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한 단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피’의 대사에서 ‘수혁’이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디스켓을 제출할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41.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은 ‘소피’의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으로 초점화 되는 장면이므로,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내는 연출로 사건의 맥락을 관객에게 인지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멍 자국’을 자세히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과 ㉢은 ‘보타의 관측경으로,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의 모습과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을 번갈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대치 국면임을 드러내는 팔각정과 판문각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긴장감 있게 드러낼 수 있다. ㉡ ㉢ 바로 앞부분에서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피’가 결박당한 포로수용소의 포로들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에서 ㉡ ‘동그라미 처진 사람 얼굴로 zoom인’하는 확대 촬영은, 바로 앞부분 ‘보타’의 대사(㉢)와 연결된 맥락으로 ‘소피’의 아버지임을 환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 ‘S#81.’은 ‘소피’가 자신의 숙소에서 접어두었던 가족사진을 펴며 아버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므로, 대사 없이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42~45] 문학

[42~45] 현대 소설 - 최명익, ‘비 오는 길’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심리주의 소설이다. 주인공 병일은 하숙방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도보로 출근하는 노동자로서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비록 가난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일은 월급을 아껴 니체나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사서 읽으며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함으로써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현실로부터 소외된 병일은 가끔 책상 앞을 떠나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내세우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에 관심과 흥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병일은 계속해서 괴리됨과 불안함을 느끼고,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다가 사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다시 독서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주제] 현실적 삶과 독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

4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병일의 생각과 공장에서 일하는 병일이 공장의 주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종락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돌아오면서,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면서 병일이 느끼는 바와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세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물의 자의식과 내면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풍자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한 반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자연이 아니라 도시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보다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병일은 사무실에서 하숙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길에 발을 멈추고 성문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㉔는 그저 지나치다가 생각나서 돌아볼 때 보게 된 성문의 일부일 뿐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누렸던 길이 매연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검게 달라지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의 소사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급사는 급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서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사와 급사와 서사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③ ㉔는 피곤한 병일의 일상에 지루함을 더하고 있는 배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㉔는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 자야 할 병일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에서 병일은 사진사와의 대화 도중에 자신의 하숙방에서 자신을 기다릴 듯한 책을 떠올리고 있다. 책이 병일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책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가 타인의 삶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볼 때, ㉠을 통해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진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신용 보증’이란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2년 동안 병일이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주인은 그런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 병일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② 주인은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병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하고 감시하면서 병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병일은 자신만의 독서와 사색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랬던 그가 ㉠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병일은 독서와 사색을 즐기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5.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하숙방에서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벼룩이만이 병일을 기다리고 있다. 병일은 그런 하숙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하고 있으므로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일은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 사진관을 찾아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게 된다. 그러고 나서 하숙방으로 돌아온 병일이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볼 때, 사진관은 자신의 생활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병일이 ‘니체’에 대해 상상을 하였던 곳은 사무실이었으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눌 뿐 그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병일은 하숙방에 유폐되어 있을 뿐 그곳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병일은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진관은 일시적으로나마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일은 ‘나의 시간’만을 보내던 병일이 평소 하지 않았던 경험이다. ⑤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면서 하숙방에 놓고 왔을 책을 떠올리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